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문 용 린 김 민 강¹⁾ 이 지 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짓말의 유형과 그 정당화 양식을 연구함으로써 거짓말에 대한 판단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1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골라 시기, 상황, 대상, 목적, 결과, 결과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개발한 분석체계에 따라 도덕, 개인, 사회관습 영역으로 나뉘고, 다시 각 영역에 따른 8개의 정당화 양식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이 기억하는 거짓말은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인 거짓말이 많았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의 원인은 개인의 이익과 선호를 위한 선택이 많았으며, 특히 중학생 집단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말의 대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에서 가족이외의 대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로 보고된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또한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 거짓말은 개인의 선택 외에 관계유지를 위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는데, 이는 관계 지향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거짓말의 대상이나 유형, 정당화 양식은 발달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관계의 범위 및 수준과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요어 : 거짓말, 도덕성, 거짓말의 유형, 거짓말의 정당화, 한국인

* 본 논문은 2008년도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저술 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교신저자 (E-mail : tiamo004@snu.ac.kr, 010-5034-1483)

I. 서론

거짓말은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양한 접근법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임상 심리학에서는 문제행동으로서 거짓말을 다루어 왔고(Stouthamer-Loeber, 1986), 사회심리학의 경우 거짓말과 인성, 상황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왔다(DePaulo et al., 1996; Kashy and DePaulo, 1996; Jensen et al., 2004). 특히 발달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이 일찍부터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나(Hartshorne & May, 1928; Piaget, 1932), 1980년대 이래로 약 반세기동안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거짓말이 다시 발달심리학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에 대한 논쟁(Chandler, Fritz, & Hala, 1989; Peskin, 1992; Polak & Harris, 1999)과 도덕성 발달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Lee, 2000; 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

거짓말은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며,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한 행위이다(DePaulo et al., 1996).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유년기 초기에 시작되며,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여겨진다(Halpert, 2000). 종단 연구에 의하면 거짓말은 7~8세경부터 급속히 늘어나며(Gervais et al., 2000), 거짓말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Lee & Loss, 1997). 동일한 상황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아동과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이기적인 동기로 인한

거짓말을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Bussy, 1999). 또한 캐나다와 중국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연구한 결과 중국 아동은 캐나다 아동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을 덜 나쁘게 판단했다(Lee et al., 1997). 이처럼 거짓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발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특성 또한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거짓말과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 이타적인 거짓말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을 위한 거짓말은 물질적 추구나 편의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DePaulo and Kashy, 1998). 이러한 거짓말의 유형은 인식의 차이와 같이 발달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아동의 거짓말은 대략 잘못을 숨기기 위한 반사회적인 거짓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재미를 위한 장난스런 거짓말로 구분할 수 있다(Bussy, 1999). 유년기 초기의 거짓말은 주로 벌을 피하기 위한 것인다가, 유년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점차 복잡하고 명백한 거짓말인 보상을 얻거나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한 이타적인 유형으로 변한다(DePaulo & Jordan, 1982; Stouthamer-Loeber, 1986). 거짓말은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청년기에 더 빈번해진다(Engels et al., 2006). 이는 청년기의 복잡한 거짓말이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은 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부모의 권위에 대

항하거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 자신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 등이었다(Smetana & Asquith, 1994; Smetana et al., 2006, Finkenauer et al.,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관계는 거짓말의 발달과 관련성이 높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수준과 관계의 질은 거짓말의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Engels, Finkenauer & Kooten, 2006; Jensen et al., 2004). 통제적인 가정의 자녀는 유대적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았다(Jensen et al., 2004).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거짓말의 유형이나 정당화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미국과 한국 아동의 권위에 대한 인식 연구에 의하면 미국 아동은 한국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에 적절한 실용적인 권위만을 고려하는 반면, 한국 아동은 권위에 더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났다(Kim & Turiel, 1996). 거짓말은 가정환경(통제적이거나 유대적) 이외에도 성별이나 인성(자제력이나 인내심)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Jensen et al., 2004). 이처럼 거짓말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통해 여러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문화특수성이 관여하고 있다.

거짓말의 정당화 유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Turiel(1983, 1984) 이론의 정당화 양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는 도덕 판단의 유형을 도덕영역, 개인영역 및 사회관습영역으로 나누었고 세 영역을 적용하여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을 분석했다(Kim & Turiel, 1996; Perkins & Turiel, 2007; Tisak & Turiel, 1984). 거짓말이 타인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도덕영역, 문화 규범의 차이나 관습을 위한 거짓말일 경

우는 사회관습영역, 순전히 개인의 선호와 선택인 경우는 개인영역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이 세 영역의 구분에 대한 인식은 문화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문제에 대해 미국 부모는 이를 사회관습의 영역으로 구분한 반면 청소년들은 자율성 존중에 기반하여 개인영역으로 구분한다(Smetana, 1988, 1989). 거짓말을 정당화 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며, 거짓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거짓말의 유형 변화와 발달의 맥락을 함께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저지른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동기의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주로 성인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벌을 피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분된다(Kim & Turiel, 1996).

거짓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되어있다. 한국인에게서 관찰되는 거짓말의 특성이나 개념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고, 최근의 연구는 거짓말의 측정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정현주, 선미정, 2006). 이렇듯 거짓말이 나타내는 특성과 거짓말의 합리화 유형 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에는 국외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구 연구들의 피험자들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독립성이 중시되는 서구문화에서 양육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로부터 얻은 결과가 과연 집단주의(collectivism)가 강한 동양의 문화와 그러한 문화권에 속한 한국인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을 런지는 의문이다.

Sweetser(1987)는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인지적 구조물이 아니고 한 개인이 사회화되는 데 기여한 문화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거짓말이란 발화내용의 사실성과 의도, 그에 대한 화자의 신념 등의 의미론적 특징으로 규정되는 인지적 구성물 일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문화적 구성물(sociocultural construct)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양권의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를 서구의 자료와 비교한 인류학적 또는 심리학적 연구들 역시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도덕적인 평가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Boyes & Walker, 1988; Shweder et al., 1987; Lee et al., 1997).

동서양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 차이가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주의에 속한 중국 아동은 사람들에게 해가 가더라도 집단적인 가치를 위한 거짓말을 선택했고,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을 말한 것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 캐나다 아동들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과 판단에 있어 중국 아동들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Fu et al., 2007). 또한 중국아동은 캐나다 아동에 비해 사회와 문화의 규범에 기반하여 친사회적인 거짓말을 선택하고 정당화하는 비중이 높았다(Lee et al., 1997). 정현주와 선미정(2006)은 Lee와 동료들(2001)이 중국과 캐나다 아동을 대상으로 겸손함을 위한 거짓말과 진실에 대한 개념화와 평가의 문화 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반복 수행하였다. 한국 아동들은 서구 아동들과 같이 겸손함을 위한 거짓말 보다는 진실에 긍정

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국 아동과 마찬가지로 겸손함을 위한 거짓말을 더 좋게 평가했다. 이는 서구와 동양의 거짓말에 대한 개념화와 평가에는 분명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거짓말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짓말의 유형과 그 정당화방식의 발달적 경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의 유형이나 정당화방식과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과거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거짓말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성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인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거짓말을 하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인은 거짓말에 대해 어떤 유형의 정당화 방식을 사용하는가?

연구문제 3.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발달적 경향성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217명으로 이중 거짓말 사례로 분석하기 어려운 대학생 1인, 성인 2인의 응답을 제외한 21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는 서울·경기 및 충청도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50명(23.4%),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72명(33.6%), 대학교 및 대학원생 44명(20.6%)과 성인 48명(22.4%)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과 성인의 경우 전공과 직종의 제한 없이 표집되었다.

2. 도구

한국인의 일상적인 거짓말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자유응답 형식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질문지의 구성은 거짓말에 관한 기존의 연구(Perkins & Turiel, 2007)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거짓말을 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골라 시기, 상황, 대상, 목적, 결과, 결과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대학생은 자신의 거짓말 사례를 수필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게 했고, 성인은 직장별로 에세이의 수집을 의뢰받은 연구조력자가 일정기간 동안 에세이를 수집한 후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에세이는 이름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자율적인 참여의사를 존중하였다. 직장인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약간의 사례를 지급하였으나, 학생의 경우 어떠한 사례나 보상(예, 성적)도 지급되지 않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이 제시된 활동지를 만들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수집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경험을 모두 기술하도록 안내하여 가까운 관

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거짓말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에세이는 연구진이 개발한 코딩체계에 따라 거짓말의 대상과 정당화 방식을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딩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은 Weston et al.(2001)이 소개한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과거의 연구에서 제시된 거짓말 정당화의 유형(Perkins & Turiel, 2007; Tisak & Turiel, 1984; Depaulo & Kashy, 1998)을 기초로 제작한 코딩체계를 수집된 자료에 적용해보고 초기의 코딩체계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도록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적용한 코딩체계를 점점 정교화 시켰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면담자료를 과거의 연구에서 도출한 11개 코드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표 1). 세 사람의 평정자가 동일한 자료를 코딩한 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기코드가 필요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평정자간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Perkin와 Turiel(2007)이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의 내용이 속하는 영역별로 특정한 정당화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초기의 코드를 서로 통합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코드의 표현을 고쳐서 최종적으로 3개영역과 8개의 정당화 방식으로 구성된 최종 코딩체계(표 2)를 개발하였다. 세 영역은 도덕, 개인, 사회 및 관습의 영역으로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며 하위 코드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사례가 표 3에 제시되

표 1. 에세이의 최초 코딩체계

코드(영문약어)	코딩기준
부정의 예방(PI)	부정(不正) 및 불의를 예방
부정에대한 도전(CI)	부정의에 대한 도전
타인의 복지(WC)	부정으로 인한 타인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손해를 예방
개인적 선택(PC)	개인의 취향과 선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
관계 유지(RM)	관계의 조화와 화목을 유지
신뢰 유지(RT)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
관계 훼손(RD)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의 회피
조직의 기대(G)	소속집단에서 당연히 여기는 관습, 기대, 요구를 저버림으로써 느끼게 될 심리적 불편을 피하기 위함
조직의 이해(MR)	소속집단의 물질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집단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함
부당한 통제(UC)	소속집단에서 가해지는 불가항력의 부당한 통제에 대한 순응
기타(OT)	분류불가

어 있다.

표 2에서 도덕영역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 없이 타인의 복지를 배려하거나 도덕 규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포함되며, 공정성 유지, 타인의 복지 코드로 분류되었다. 개인영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 자신이 속한 관계의 조화와 유지를 위한 거짓말과 심리적·육체적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잘못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로 도덕법칙이나 정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거짓말이다. 끝으로 사회 및 관습의 영역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에 기반 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대와 이익에 부응하기 위한 거짓말과 집단의 문화 및 권위에 복종하기 위한 거짓말로 한국의

군대 문화나 집단주의 성향에 부합되는 영역이다.

이상의 코딩체계를 활용하여 2인의 평정자가 전체 에세이 중 임의로 표집한 25%(N=65)의 자료를 대상으로 코딩을 하고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에 대해 Cohen의 k 로 계산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952였다. 전체 에세이에 대한 코딩이 끝난 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성된 유목자료는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χ^2)검증을 실시하고, 코딩된 에세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의 내용과 이유, 대상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에세이의 최종 코딩체계

영역	코드(영문약어)	코딩기준
도덕영역	공정성 유지(PJ)	부정(不正) 및 불의를 예방하거나 이에 도전
	타인의 복지(WC)	부정으로 인한 타인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손해를 예방
개인영역	개인적 선택(PC)	개인의 취향과 선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
	관계 유지(RM)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에 대한 기대에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함
	안전의 위협(PM)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하고 손해를 막기 위함
사회 및 관습영역	조직의 기대(G)	소속집단에서 당연히 여기는 관습, 기대, 요구를 저버림으로써 느끼게 될 심리적 불편을 피하기 위함
	조직의 이해(MR)	소속집단의 물질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집단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함
	부당한 통제(UC)	소속집단에서 가해지는 불가항력의 부당한 통제에 대한 순응
PJ : Preventing Injustice PM : Prudential Maintenance WC : Welfare Concerns G : Guilt PC : Personal Choice MR : Material Responsibility RM : Relationship Maintenance UC : Unwarranted Control		

III. 결 과

1. 거짓말의 대상

표 3과 같이 연령별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거짓말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 줄어들고 가족이외의 대상에 대한 거짓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chi^2(3)=26.0, p<.001$).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부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주를 이루었고($\chi^2(1)=9.7, p<.01$), 가족 이외의

표 3. 집단에 따른 거짓말 대상의 변화

집단	대상 구분		전체
	가족	가족 이외	
초등학생	36 (72.0%)	14 (28.9%)	50
중등학생	25 (34.7%)	47 (65.3%)	72
대학생	14 (31.8%)	30 (68.2%)	44
성인	13 (27.1%)	35 (72.9%)	48
전체	88 (41.1%)	126 (58.9%)	214

경우 주로 학교 및 학원 선생님과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가족보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더 많은데($\chi^2(1)=6.7, p<.01$), 또래관계를 중시하게 되면서 가족보다는 선생님과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이 많아졌고,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 많았다. 이는 발달 시기별로 의미 있는 타자가 바뀌면서, 권위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아동기의 거짓말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또래를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함을 보여준다. 대학생($\chi^2(1)=5.8, p<.05$)과 성인 집단($\chi^2(1)=9.7, p<.01$)에서도 가족 보다는 동료나 상사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 많았고 대다수의 거짓말 사례가 가까운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2.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표 4는 코딩체계에 따른 정당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도덕 영역에 속하는 공정성 유지(PJ)의 사례는 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험자가 작은 소매상이 겪을 불이익을 막기 위해 거대 식품기업을 상대로 조사결과를 거짓 보고한 경우이다. 타인의 복지(WC)를 지키기 위한 사례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심리 및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경우이다.

개인적 선택(PC)은 시험부정행위, 부모의 돈을 훔치고 한 거짓말, 학원에 가기 싫어 한 거짓말, 늦게까지 놀기 위해 한 거짓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모든 거짓말 사례이

다. 그러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혼나기 싫어서 한 거짓말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PC)의 사례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관계 유지(RM)나 안전의 위협(PM)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걱정과 가정의 평화에 해가될까 두려워서라면 이는 개인적 선택이 아닌 관계 유지(RM) 코드로 분류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나 교사에게 솔직하지 못한 이유가 체벌과 폭언 같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이는 안전의 위협(PM)으로 분류되었다. 중학생의 경우 또래로부터 당할지 모를 폭력이 두려워 거짓말을 선택한 경우, 이는 개인적 선택이 아닌 안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위 세 가지 코드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덕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조직의 기대(G), 조직의 이해(MR), 부당한 통제(UC)는 군대나 기업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조직의 규범이 철저하며 특수한 조직풍토를 가진 집단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 및 관습 영역의 정당화 방식이다. 조직의 기대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조직풍토에 대한 배려를 위한 거짓말로 직장 상사나 부하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자신이 책임지는 사례에서 나타난다. 소속집단의 물질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거짓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의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과장한 거짓말이 조직의 이해(MR)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부당한 통제(UC)는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이 자주 겪을

표 4. 대상에 따른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의 예

정당화 방식	거짓말의 내용	이유	대상
PJ	대리점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	작은 슈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식품기업
WC	울먹이는 아이의 점수를 고쳐주고 실력이 좋다고 거짓말 함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없다고 하고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까봐 할머니께 길을 알려드리려고	아이와 학부모 모르는 할머니
PC	시험 부정행위를 하고 친구의 과제를 베끼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여행 감	나만 잘하고 싶어서 더 놀고 싶어서	교사 부모
RM	집나간 형의 생사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 형인 척 하고 가짜 편지를 만들어 부모님께 보냄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과 선생님께는 싸우지 않았다고 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싫어서	부모 부모, 교사
PM	숙제를 안하고 했다고 함 물건을 잃어버리고 비슷한 물건을 산 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함	매 맞기 싫어서 폭력과 고함이 너무나 두려워서	부모 부모
G	후임병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속여서 보고함	군대에서는 후임병의 잘못은 선임병이 책임지므로	상사
MR	다른 회사와 경쟁 시 우리 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발표 함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
UC	회사 문서를 위조 함	상사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회사

만한 경우로, 상사의 명령 또는 권위나 압력으로 인해 부당하지만 조직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거짓말로 상사의 명령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3. 집단에 따른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표 5와 같이 주로 사용하는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χ^2

(21)=103.1, $p<.001$). 초등학생의 경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 가장 많았고(42%), 안전에 위협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38%)이 그 다음이었다($\chi^2(4)=28.4$, $p<.001$). 중학생은 개인적 선택이 거짓말 사례의 대다수였고(77.8%)관계 유지가(20.8%) 나머지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속하는 사례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chi^2(2)=55.8$, $p<.001$).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사회적인 관계의 폭에 제한이 있기

표 5. 집단에 따른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집단	정당화 방식								전체
	도덕영역(n=8)		개인 영역(n=201)			사회 및 관습 영역(n=5)			
	PJ	WC	PC	RM	PM	G	MR	UC	
초등학생	1(2%)	2(4%)	7(14%)	21(42%)	19(38%)	-	-	-	50
중학생	-	-	56(77.8%)	15(20.8%)	1(1.4%)	-	-	-	72
대학생	1(2.3%)	1(2.3%)	24(54.5%)	16(36.4%)	1(2.3%)	-	1(2.3%)	-	44
성인	2(4.2%)	1(2.1%)	18(37.5%)	23(47.9%)	-	1(2.1%)	2(4.2%)	1(2.1%)	48
전체	4(1.9%)	4(1.9%)	105(49.1%)	75(35%)	21(9.8%)	1(.5%)	3(1.4%)	1(.5%)	214

때문에 조직을 고려한 사회 및 관습 영역에 속하는 정당화 방식은 보고되지 않았다. 대학생의 경우도 아직 사회조직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54.5%)과 관계 유지(36.4%)의 정당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조직의 이해(2.3%)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대학에 들어온 피험자의 사례였다($\chi^2(6)=83.0, p<.001$). 성인은 대학생과 달리 관계 유지(47.9%)를 위한 거짓말이 더 많

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선택(37.5%)이 많았다($\chi^2(7)=94.3, p<.001$).

4. 대상에 따른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은 관계를 유지(RM)하기 위한 경우(42%)가 가장 많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부모의 심려를 덜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chi^2(2)=95.1, p<.001$). 가족

표 6. 대상에 따른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

정당화 방식		대상 구분		전체
		가족	가족 이외	
도덕 영역 (n=8)	PJ	-	4 (3.2%)	4 (1.9%)
	WC	-	4 (3.2%)	4 (1.9%)
개인 영역 (n=201)	PC	30 (34.1%)	75 (59.5%)	105 (49.1%)
	RM	37 (42.0%)	38 (30.2%)	75 (35%)
	PM	21 (23.9%)	-	21 (9.8%)
사회 및 관습영역(n=5)	G	-	1 (.8%)	1 (.5%)
	MR	-	3 (2.4%)	3 (1.4%)
	UC	-	1 (.8%)	1 (.5%)
전체		88 (41.1%)	126 (58.9%)	214

이외의 대상에게는 개인적 선택(PC)에 따른 거짓말(5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RM)하기 위한 거짓말(30.2%)이 많았다($\chi^2(3)=22.6, p<.001$).

도덕 영역과 사회 및 관습 영역의 거짓말 사례는 모두 가족 이외의 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두 영역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가족 이외의 대상으로 구분되나, 도덕 영역의 사례는 모르는 타자의 이익이나 도덕 및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상인 반면, 사회 및 관습 영역의 타자는 같은 집단에 소속된 가까운 관계의 타자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개인적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PC)은 가족보다 가족 이외의 대상이 많았으며, 관계유지(RM)는 가족과 가족이외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안전의 위협(PM)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은 모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사례 중 대부분(90.4%)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벌이나 폭언이 두려워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초등학교생의 경우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도구의 개발에 앞서 시행된 예비연구로서, ‘정직(honesty)’과 ‘거짓(dishonesty)’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도덕적 삶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세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연령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짓말의 내용과 대상, 거

짓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추론의 근거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도덕적 삶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거짓말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하병학, 2002).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기억하는 거짓말은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인 거짓말이 많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게 동일한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는 방법(재인과제) 대신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거짓말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생성과제)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거짓말의 사례는 가족 또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았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도록 했음에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나 조직적인 거짓말이 보고된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영역의 거짓말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집중시키고 기억에 남지만, 일반인이 쉽게 하거나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짓말은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에서 보고된 거짓말의 가장 많은 원인이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인간관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재음을 요구한다. 원래 개인적(personal)이고 가까운(close) 관계는 비밀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특별히 좋은 인상을 주려는 별도의 노력 없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자신됨을 드러내는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Argyle & Henderson, 1984; Maxwell, 1985; Parks & Floyd, 1996). 따라서,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진정성이 결여된 거짓말이 많이 보고된 것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른 거짓말은 중학생 집단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 집단에서는 부모로부터 금지된 행동(예. 게임, PC방 출입)을 하거나 그것이 발각됨으로써 입게 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다수 수집되었다. 이 시기의 경우 인간관계가 가정과 학교로 국한되고 아직 사회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수집된 거짓말이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친밀도가 높을수록 거짓말의 빈도나 낮아지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Depaulo & Kashy, 1998). 거짓말은 그 상대방이 가진 권력의 크기에 따라 예언되기도 하는데(Hample, 1980; Lippard, 1988), 이 시기의 경우 부모가 중요한 자원과 특권에 대한 가장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금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제시(self-presentational)를 위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erkins & Turiel, 2007).

셋째, 개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의 원인은 현재의 인간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거짓

말은 성인집단에서 많이 나타난다. 관계유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연구에서도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한 가지로 일지연구(diary study)와 같은 현장연구 또는 질적연구뿐만 아니라 객관식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이유이다(Perkins & Turiel, 2007).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반드시 진실만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경향성에 대해 Ekman과 Friesen(1969)은 ‘사람들은 상대의 거짓말을 발견하기보다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수 십 년 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인간관계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친사회적 거짓말(altruistic lie)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와 부모님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막거나,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 사이의 우정에 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짓말 등이 그러하다. 먼 관계에 비해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에 예민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금방 사실이 밝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Anderson et al., 1999). 그럼에도 참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기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가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 편으로 공동체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양권의 사람들은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친사회적 거짓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는데(Lee et al., 1997), 가족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 군대나 직

장 상사가 하게 되는 집단적 책임감(collective responsibility)에 의한 거짓말 등은 이러한 문화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에세이 작성이라는 질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이 존재하는 양태를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별로 서로 다른 거짓말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정당화 방식을 기술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짓말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나 발달의 양상을 밝히는 데는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내에 일어난 거짓말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 수집한 거짓말의 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물론 정당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을 탐색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거짓말의 다양한 특성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서구의 자료와 비교함은 물론 동양권 내의 국가 사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정현주, 선미정 (2006). 아동의 거짓말 개념정의 및 도덕판단에 대한 겸손함의 효과, 아동발달, 16, 243-258.
- 하병학 (2002). 거짓말하는 한국사회. 철학과 현실, 54, 164-176.
- Boyes, M. C., & Walker, L. J. (1988). Implications of cultural diversity for the universality claims of Kohlberg's theory of moral reasoning. *Human Development*, 31, 44-59.
- Chandler, M., Fritz, A. S., & Hala, S. (1989). Small-scale deceit: Deception as a marker of two-, three-, and four-year-olds' early theories of mind. *Child Development*, 60, 1263-1277.
- Hartshorne, H., & May, M. (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Studies in deceit)*. New York: MacMillan.
- Lee, K. (2000). Lying as doing deceptive things with words: A speech act theoretical perspective. In J.W. Astington (Ed.), *Mind in the making* (pp.177-196).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Peskin, J. (1992). Ruse and representations: On children's ability to conceal in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84-89.
- Piaget, J. (1932/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olak, A., & Harris, P. L. (1999). Deception by young children following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561-568.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1-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weetser, E.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D. Holland (Ed.),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pp.43-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Paulo, B.M. & Kashy D. A. (1998). Everyday lies in close and casu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3-79.
- Talwar, V. & Lee, K. (2002). Development of lying to conceal a transgression: Children's control of expressive behaviour during verbal de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436-444.
- Ikuenobe, P. (2002). The meta-ethical issue of the nature of lying: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1, 37-63.
- Fu, G., Xu, F., Cameron, C.A., Heyman, G. & Lee, K. (200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choices, categorizations, and evaluations of truths and 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78-293.
- Perkins, S. A. & Turiel, E. (2007). To lie or not to lie: To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Child Development*, 78, 609-621.
- Kim, J. M. & Turiel, E. (1996). Korean and American children's concept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Social Development*, 5, 310-329.
- Tisak, M. 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Jensen, L. A., Arnett, J. J., Feldman, S. S., & Cauffman, E. (2004). The right to do wrong: Lying to parents among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101-112.
-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 van Kooten, D. C. (2006). Lying behavior, family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 Youth Adolescence*, 35, 949-958.
- Turiel, E. & Perkins, S. A. (2004). Flexibilities of mind: Conflict and culture. *Human Development*, 47, 158-178.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 Smetana, J. G., Metzger, A., Gettman, D. C., & Campione-Barr, N. (2006). Disclosure and secrecy in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7, 201-217.
- 1 차원고접수 : 2008.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9. 09.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Justifications and patterns of everyday lies by Korean people

Yong-Lin Moon

Minkang Kim

Jihye Lee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specificity of reasoning and cultural universality of lying, by analyzing patterns of lie-telling and the justifications offered by Korean people when telling everyday lies. Two hundred and fourteen participants completed essays on their lying; focusing on those lies that were most prominent in their memories. Directions asked them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citing the time, situation, targeted person, outcomes, and their feelings about the outcomes. These essays were then analyzed by means of a coding scheme that contained within it three domains (moral, personal, and socio-conventional) and twelve justification codes. The results indicate that lies most frequently occur within close relationships rather than other forms of relationships. In close relationships, people reported that the primary motivation behind their lying was personal interest or preferences, and this was most comm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lationships in which they told lies ranged from family to other social relationships, as their ages increas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ustifications offered for lying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Lies in the personal domain were usually justified as a means of maintaining harmony or trust in relationships, which may relate to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collective cultural forces at work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lies, justification, collective culture